

보도시점 2025. 10. 31.(금) 09:00 배포 2025. 10. 31.(금) 08:30

지식재산처대전광역시, 150억원 규모의 IP^{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 조성

- 펀드 참여 희망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신청(11.10~21) -
- 우수 특허를 보유한 대전 혁신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 기대 -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11. 10.(월)~11. 21.(금)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공공투자기관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다.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IP)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①투자 전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②대전 6대 전략산업(ABCDQR)* 분야의 대전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헬스(Biohealth), ▲나노·반도체(Chip), ▲국방(Defense), ▲양자(Quantum), ▲로봇(Robot)·드론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동펀드 조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역의 첨단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자금을 조달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IP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2025년 10월 수시 출자사업을 확인하고, 11. 10.(월)~11. 21.(금)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유용신 (042-481-3542)
		담당자	사무관	이효빈 (042-481-5087)
	대전광역시 기업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종탁 (042-270-2630)
		담당자	주무관	김은경 (042-270-2661)
	대전투자금융 투자실	책임자	대 표	송원강 (042-936-9761)
		담당자	실 장	오승주 (042-936-9762)